

2021 제2차 KIS Podcast

이연되는 금융기관 Risk, 실질 자산건전성 저하 정도는? - 은행/카드업 시나리오 분석

금융구조화평가본부 김정훈 수석애널리스트 / 여윤기 수석애널리스트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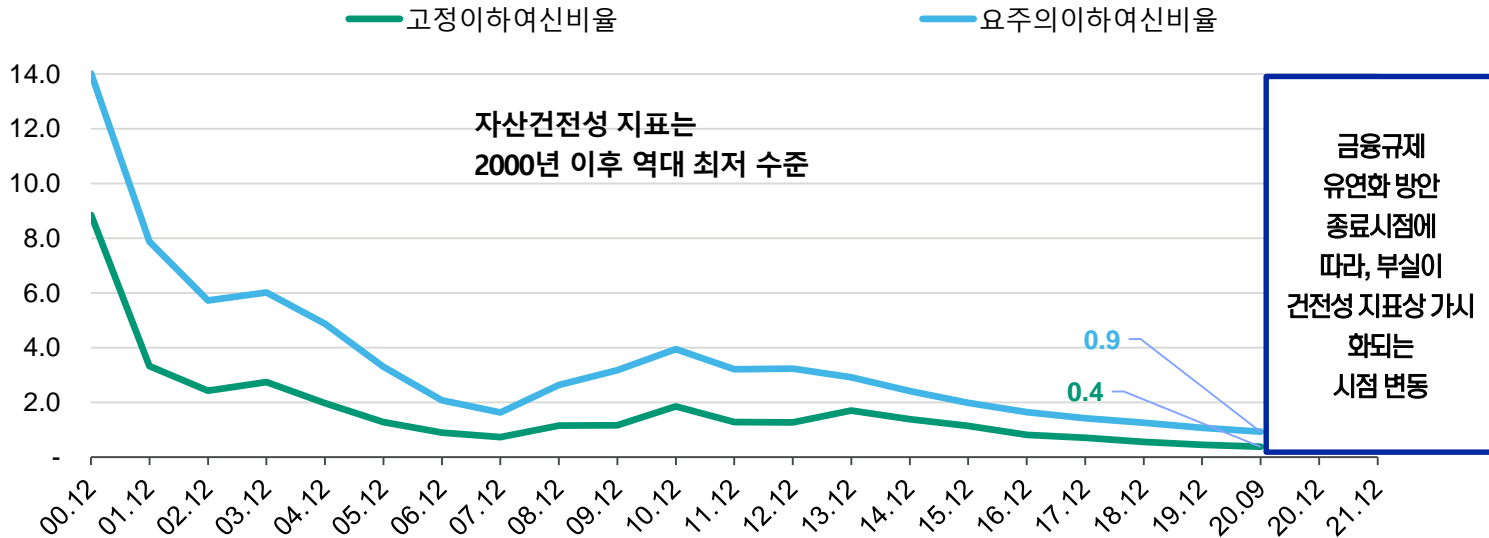
Q1.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인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가 3월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연장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전망은?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건전성 지표 착시효과 이어질 전망

- 2021년 금융위원회에서 업무계획 발표 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추가 연장 불가피하다고 언급
→ 재무건전성 지표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 제한적일 전망
- 일시적 유동성 부족 차주와 구조적 어려움 겪는 기업을 구분하여 Two Track으로 지원 예정 (유동성 공급 또는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등)
→ 선별적인 지원정책으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여신은 올해부터 건전성 지표상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요주의이하여신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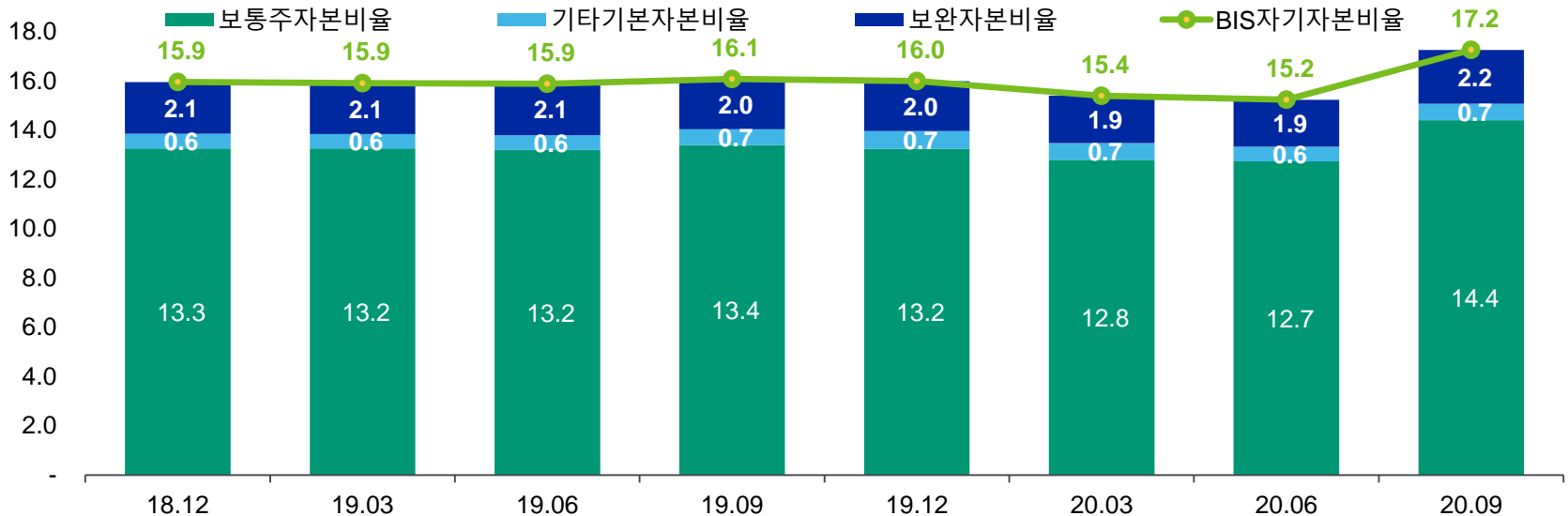
주) 국내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합산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제외)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건전성 지표 착시효과 이어질 전망 (계속)

- 2020년 3분기 중 다수 은행이 바젤 III 최종안 조기 도입하여 자본비율 큰 폭으로 개선
 (*) 광주/전북은행은 2분기 중 적용, 하나/SC/씨티은행은 미적용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되어 재무건전성 지표 착시 효과 이어질 전망

자본비율 추이(단위:%)



주당사평가대상인 11개 일반은행 합산 기준
 자료: 업무보고서

- 2021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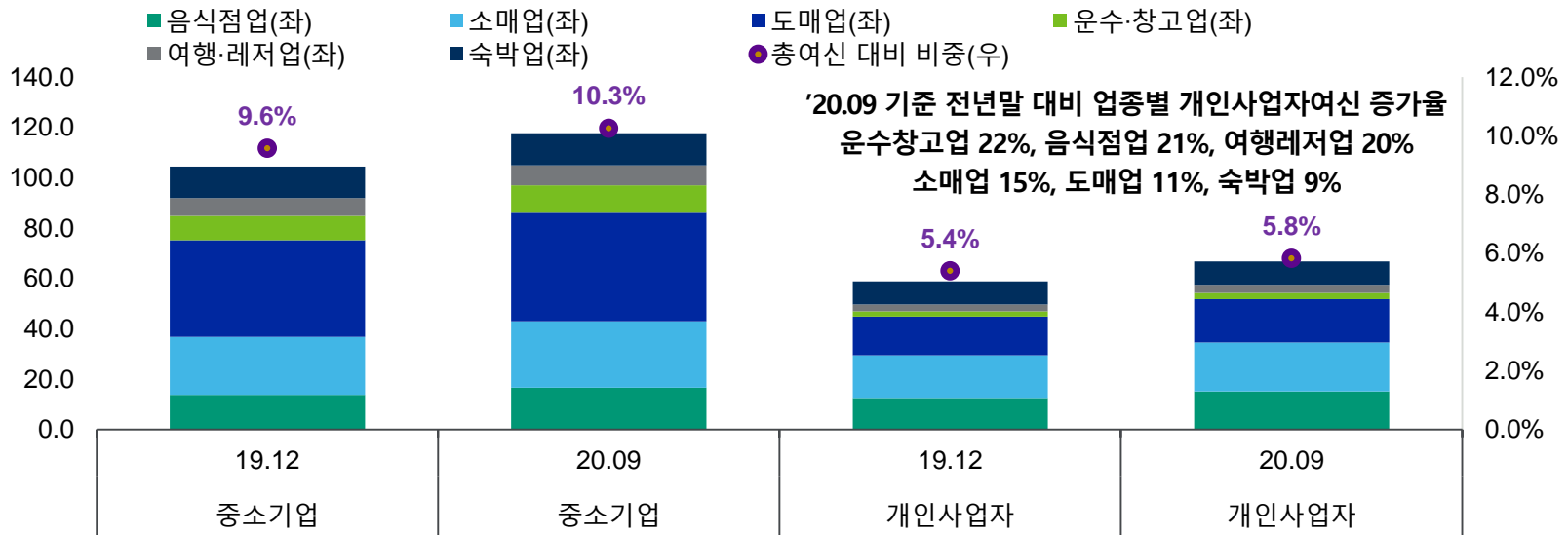
Q2. 착시효과로 가려진 실질 재무건전성은 어떤 지표로 파악하고 있는지?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코로나19 민감업종 익스포저로 잠재부실 규모 파악

- 채무상환능력이 열위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민감업종 중 운수창고업, 음식점업, 여행레저업 여신증가율은 20% 이상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여신증가율 9% 크게 상회
→ 상기 3개 업종 여신 비중 높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부담이 클 전망

코로나19 민감업종 여신규모 및 총여신 대비 비중(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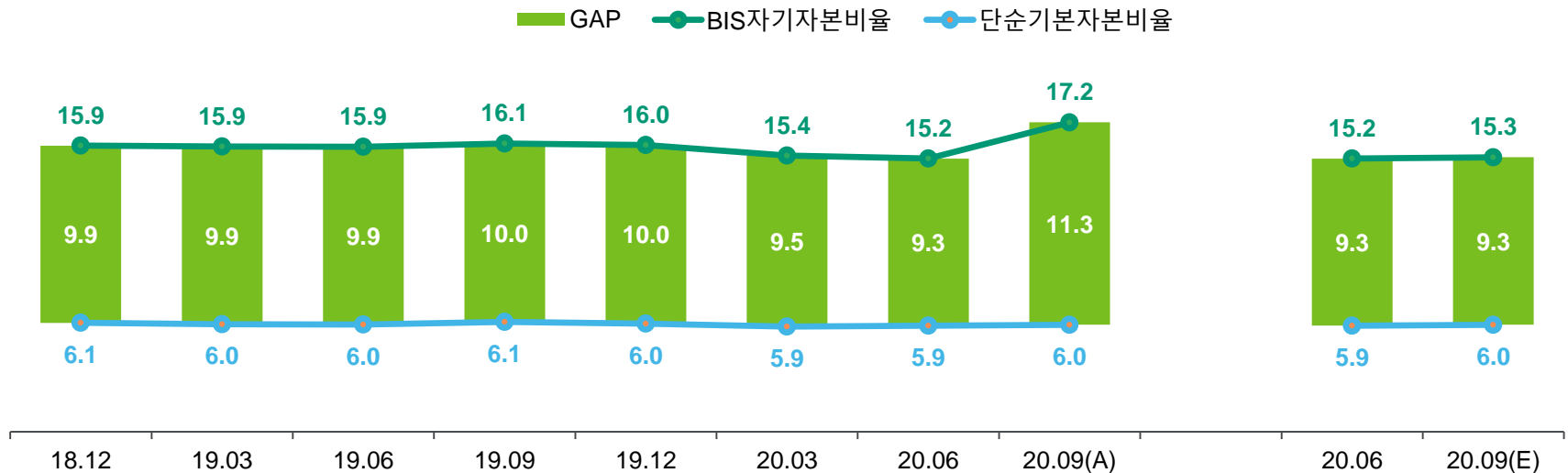
주) 당사 평가대상인 11개 일반은행 기준
 2) 중소기업에 법인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포함됨
 자료: 업무보고서

Credit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단순기본자본비율을 활용하여 실질 자본완충력 판단

- 단순기본자본비율(*)을 보완지표로 활용 중
 - (*)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유효성 검증의 어려움, 가정의 부적절성 등 리스크 기반의 자본규제를 보완하는 지표, 은행업감독규정상 최소 30%이상 유지해야 함
- 단순기본자본비율을 활용한 BIS비율은 153%로 추정 → 명목지표 대비 실질적인 자본완충력 개선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단순기본자본비율 vs BIS자기자본비율(단위:%)



주1) GAP = BIS자기자본비율 - 단순기본자본비율
 2) 당사 평가대상인 11개 일반은행 합산 기준
 자료: 업무보고서

- 2021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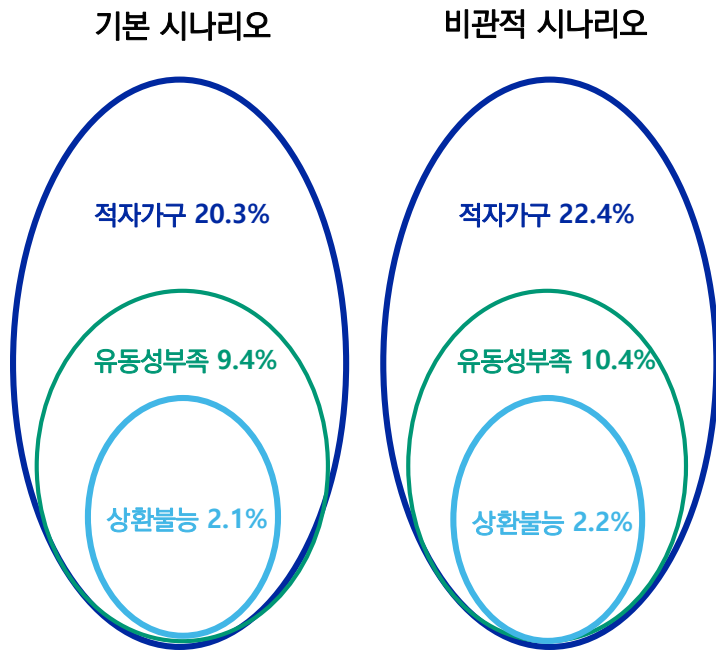
Q3. 잠재부실 규모는 은행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는지?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잠재위험 분석

- 자영업 가구의 20% 내외는 코로나19 충격 완화에도 2021년 말 적자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나, 부실이 증가할 우려가 상존함
- 기본 시나리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2/4분기 이후 매출액이 충격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 상황
- 비관적 시나리오: 2020년 10월 매출 현황이 2021년 말까지 지속되는 상황

한국은행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분석 시나리오



자료: 한국은행

당사 가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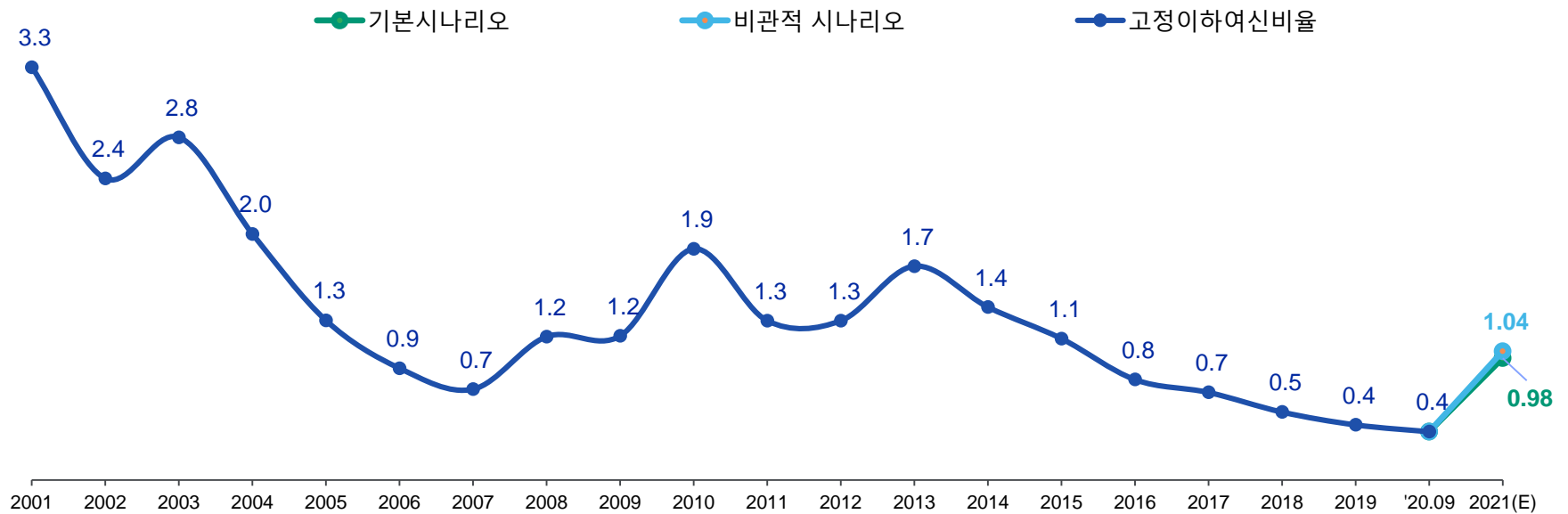
구분	내용	KIS 시나리오 분석상 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은행감독규정)
적자가구	매출 감소로 총소득이 필수지출을 하회하는 가구	요주의	7% 이상
유동성부족가구	적자가구 중에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적자에 대응할 수 없는 가구	고정	20% 이상
상환불능가구	적자가구 중에서 자산이 부채를 하회하여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처하게 되는 가구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회수의문 50% 이상 추정손실 100%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부실흡수능력 고려 시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자영업자 관련 잠재부실로 인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p 가량 상승하여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08년 금융위기 시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폭 0.5%p 대비 증가폭 크게 나타날 가능성 존재

시나리오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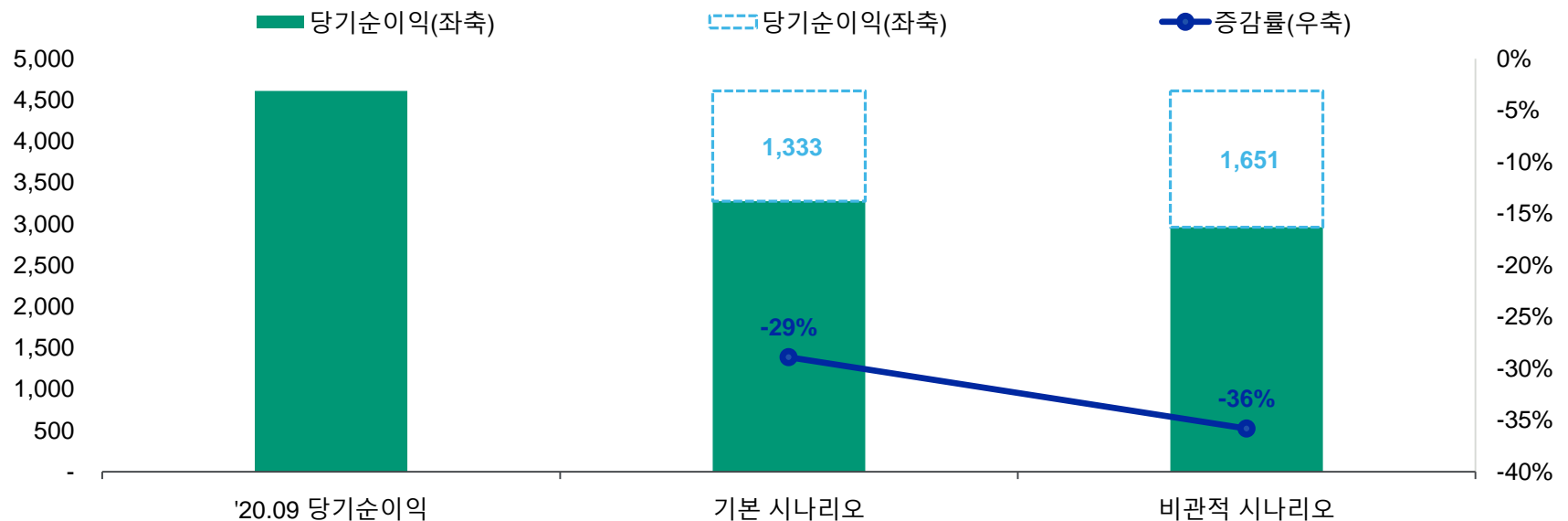
주)당사 평가대상 11개 일반은행 기준
자료: 한국신용평가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부실흡수능력 고려 시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계속)

- 대손부담으로 당기순이익은 30% 내외 감소할 가능성 존재 (08년 금융위기 시 당기순이익 YoY 39% 감소)
→ 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폭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지만 선제적으로 총당금 적립하여 순이익 감소폭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시나리오별 당기순이익 변동 (단위: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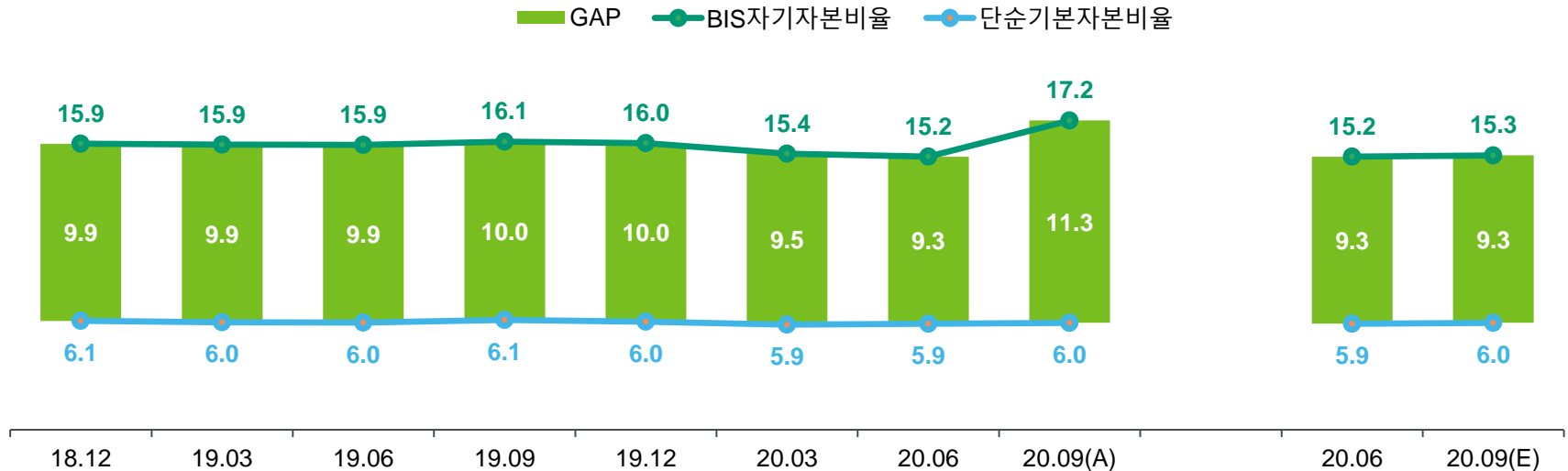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감내 가능한 수준임

- 우수한 자본완충력 고려 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20년 9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100% 초과 적립액 1.7조원
 - BIS비율 추정치 153%로 150% 유지할 때까지 자본완충력 약 13조원 보유한 것으로 추정

단순기본자본비율 vs BIS자기자본비율(단위:%)



주1) GAP = BIS자기자본비율 - 단순기본자본비율
 2) 당사 평가대상인 11개 일반은행 합산 기준
 자료: 업무보고서

Credit Issues : 은행 자산건전성 점검

부실흡수능력 고려 시 감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계속)

-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영향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잠재부실 약 4.7조원)
→ 이자 상환이 유예된 대출규모는 일반은행 총여신의 약 0.3%인 것으로 추정
- 일부 주요 은행은 이자상환이 유예된 모수 대출채권의 순신용 비중을 최대손실액으로 산출하여 리스크 관리 중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 2021.01.19 금융위 발표 기준

구분	만기 연장금액	분할 상환 원금 유예	이자 유예금액	비고
금융권 전체	116조원 (35만건)	8조 5천억원 (5만 5천건)	1,570억원 (1만 3천건)	이자 상환 유예의 대상이 되는 대출규모 4조 7천억원

주) 금융권 전체 = 시중은행 + 정책금융기관 + 제2금융권
자료: 금융위원회, 언론 보도자료

▪ 2021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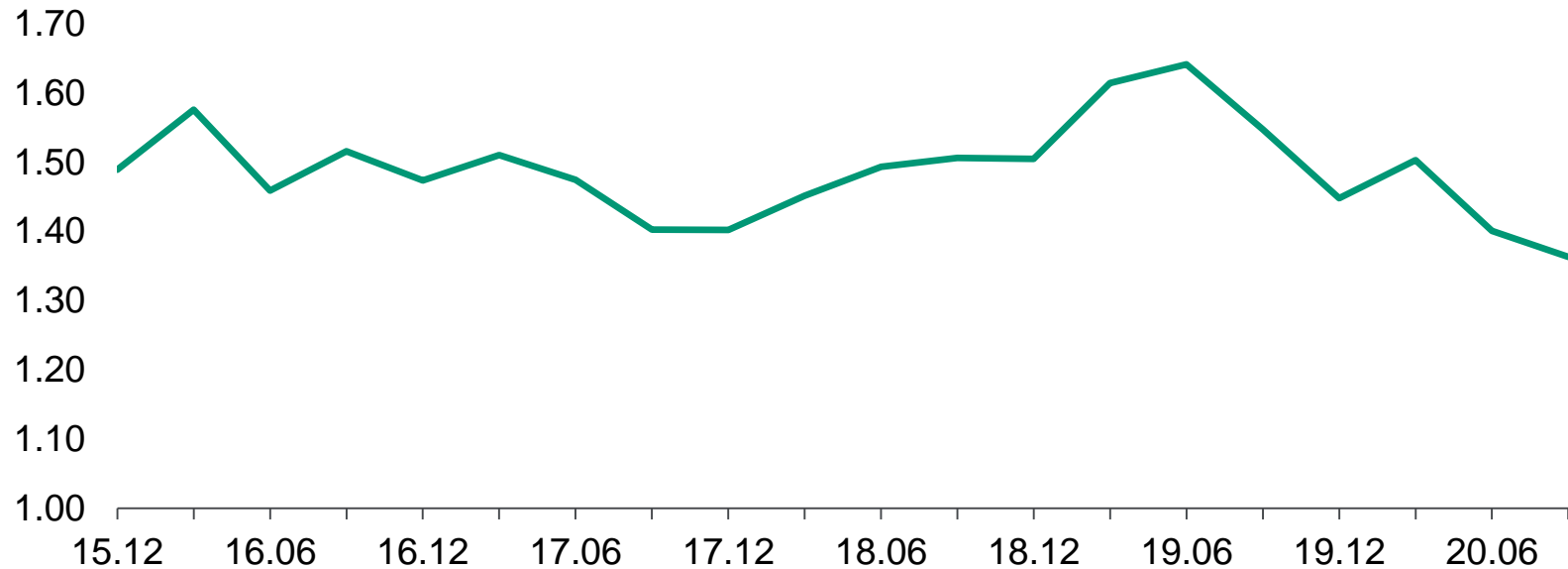
Q1. 카드의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해준 상태인데, 해당 지원 정책이 만료될 경우, 건전성 지표가 될 가능성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건전성 지표 자체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다 보니, 선제적으로 건전성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가 어떤 게 있을지?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카드 자산건전성 우수한 것인가, 착시효과인가?

-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은 큰 변화가 없음
- 정책적 지원으로 인한 착시 효과인가? 카드사의 건전성이 정말로 우수한 것인가?
- 대표적인 건전성지표인 1개월 이상 실질연체율 지표는 동 지표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

1M+ 실질 연체율(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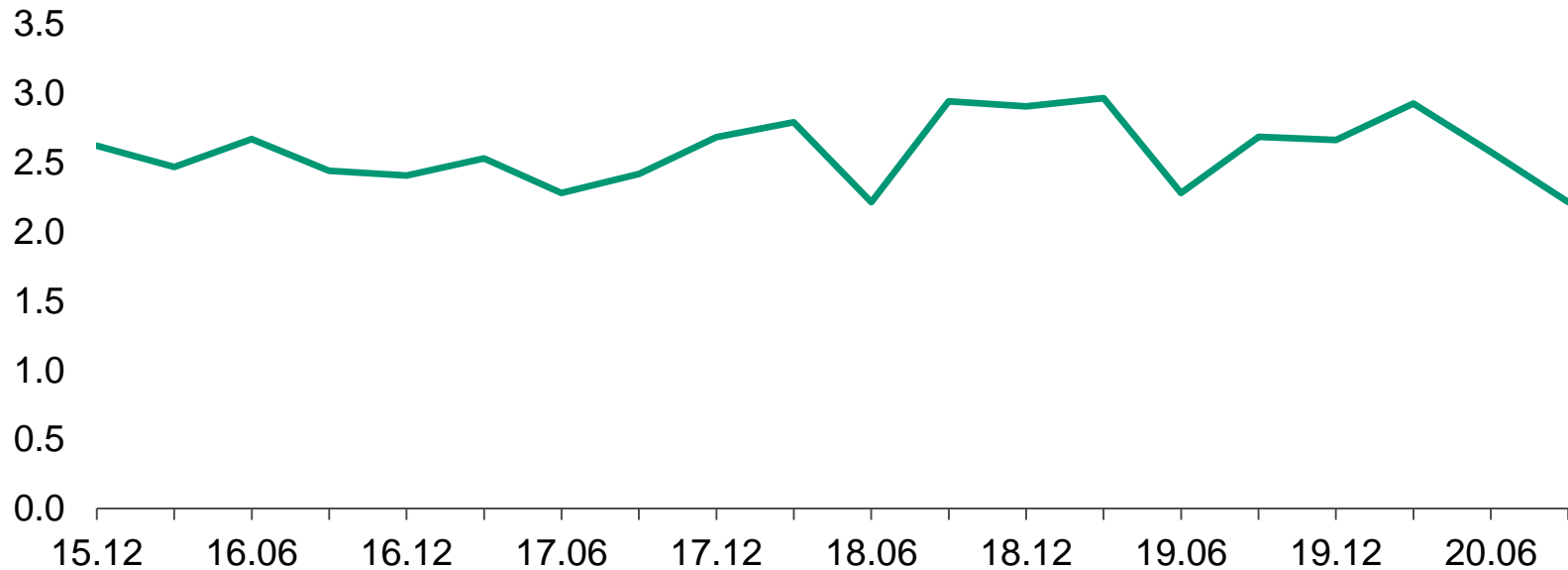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카드 자산건전성 우수한 것인가, 착시효과인가?(계속)

- 부실채권 매각상각 효과를 제외한 신규 부실채권 발생 비율 양호하게 유지
- ①만기연장 특례 프로그램 신청 수준, ②연체전이율 추이, ③ 저신용 다중채무자 취급 비중 등 고려할 때,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은 좋아졌으며, 경상적 상황에서의 자산건전성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 다만, 유사시 상황에서의 대응력까지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건전성지표 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부실채권 발생비율 (단위:%)



주1) 연환산

주2) 부실채권발생비율 = (분기말실질연체채권잔액 - 전년도말실질연체채권잔액 + 매각 및 상각액) / 직전연도말총채권잔액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관련 정책 프로그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중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대상: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 내용: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 상각 이후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상품: 카드론 해당되며, 현금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음

원금 상환유예 프로그램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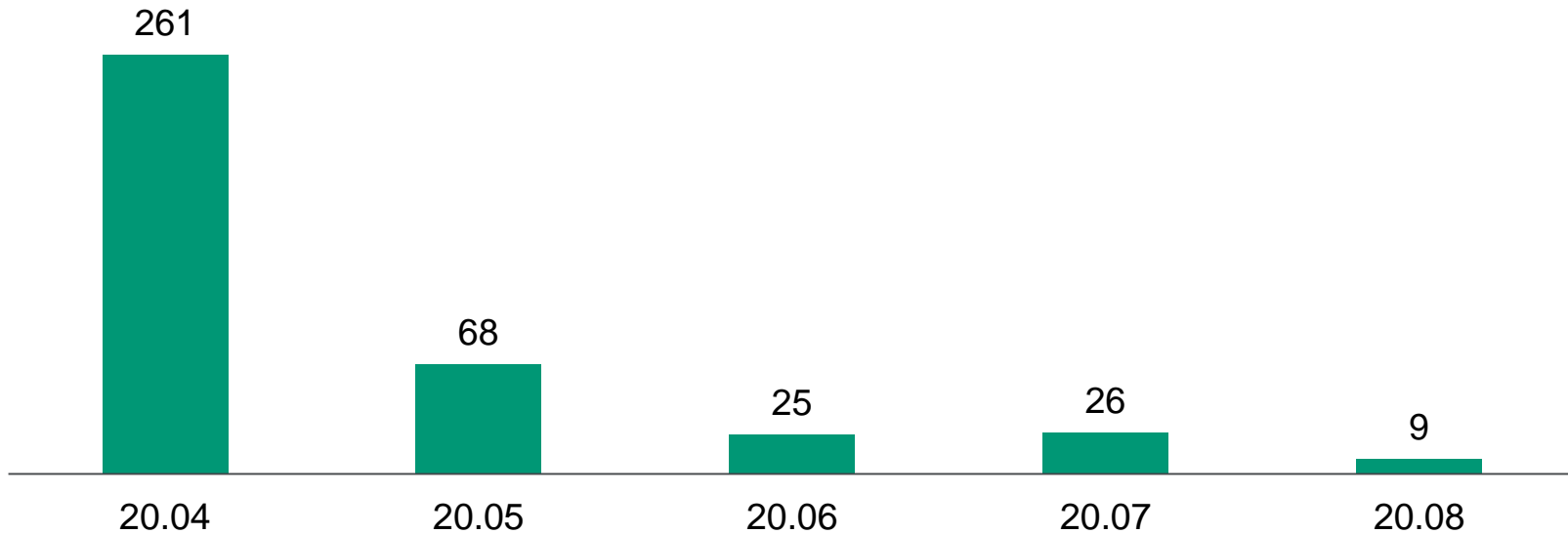
구분	세부유형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
신용대출	일반 신용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	●	●	●	● (카드론 등)
	한도대출 (마이뉴스통장)	●	●	X	-	X (현금서비스 등)
	기타 적용제외 대출	협약대출 ²⁾	-	-	-	신용카드대금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계속)

- 특례 프로그램 도입 시점인 4월에 신청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 빠르게 신청 규모 감소
- 2020년 8월 이후에도 여전히 신청 규모 미미한 수준

월별 원금 상환유예 프로그램 신청규모(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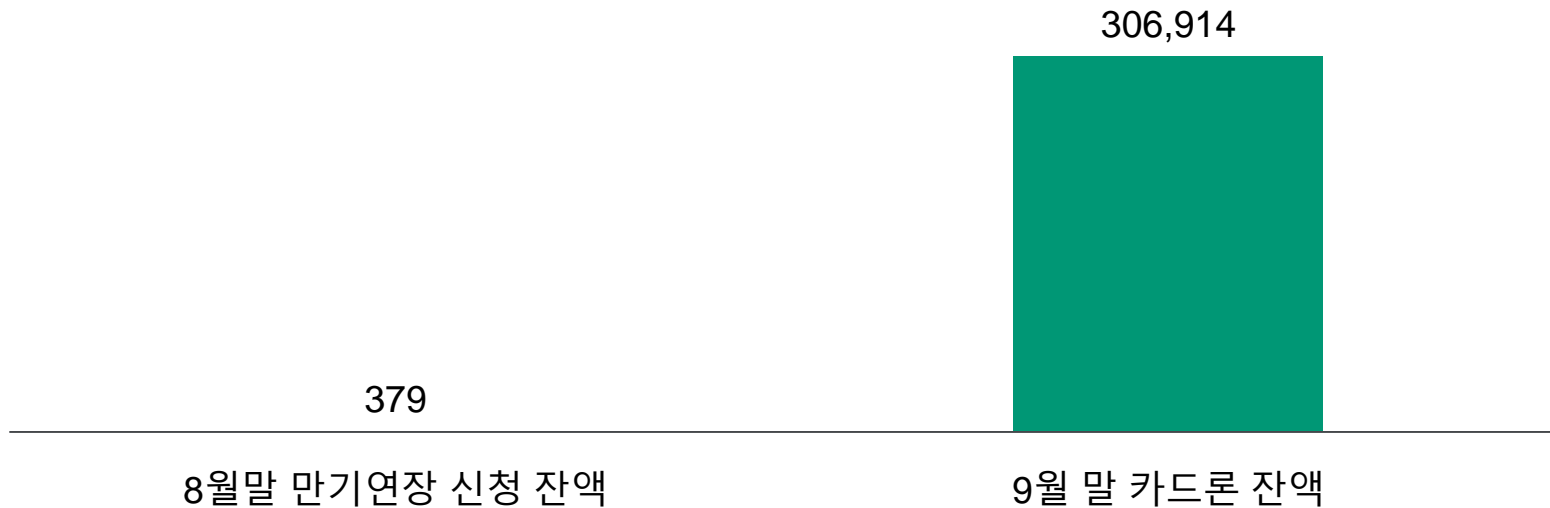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계속)

- 8월 기준 신청 잔액은 약 37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9월 말 카드론 잔액 307조원의 0.1%에 불과
- 특례 프로그램 종료로 카드대출 건전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 낮을 것

프로그램 신청잔액 및 카드론 잔액(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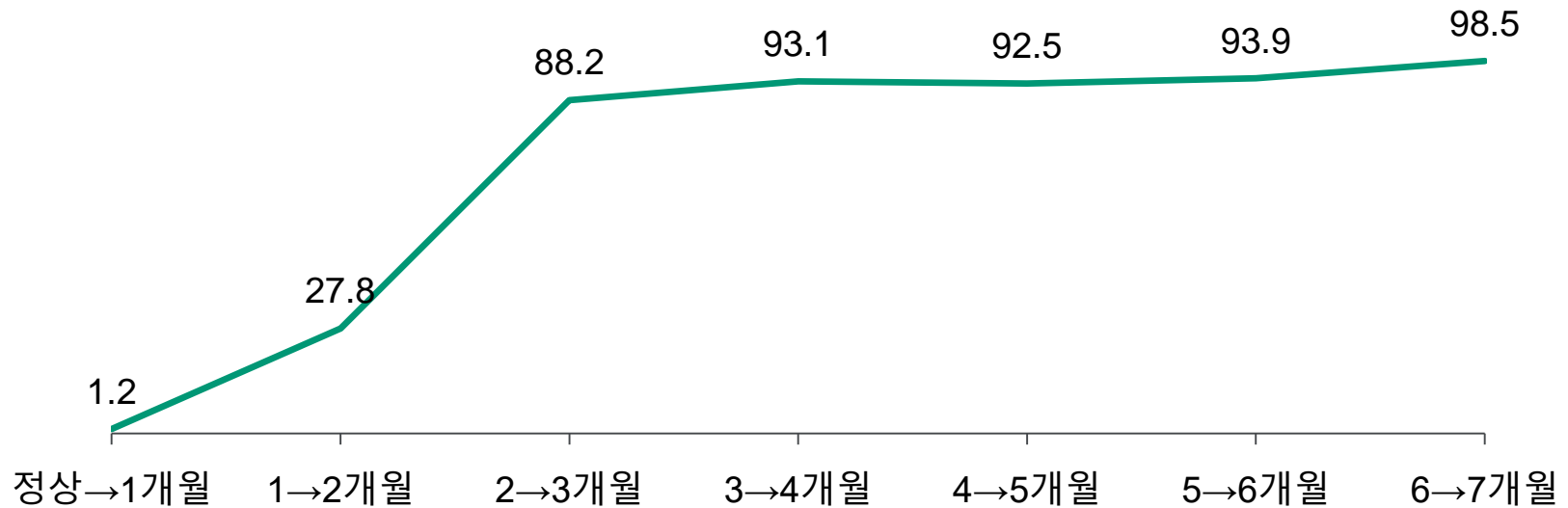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정상→2개월 연체전이율 지표를 통한 부실징후 검토

- 부실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채권의 2개월 연체전이율 지표 검토
- 정상채권이 2개월 연체되는 경우, 부실 확률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정상채권의 2개월 연체전이율은 선제적 건전성지표로 기능

카드자산 연체전이율(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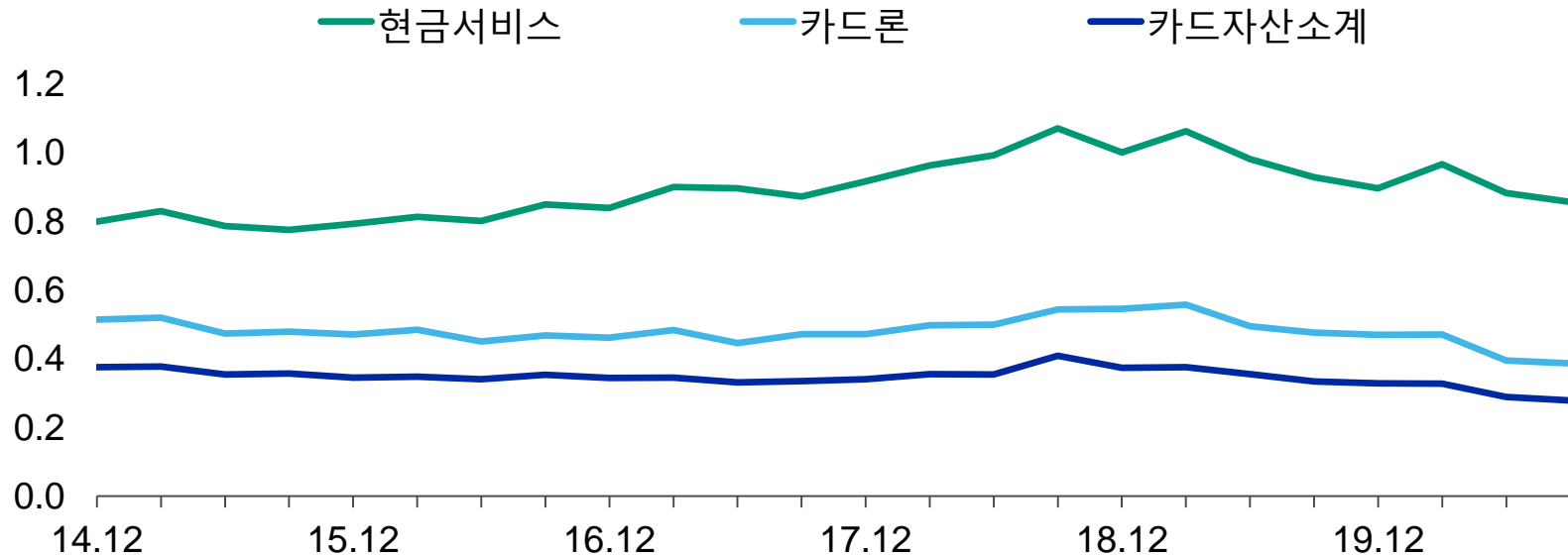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정상→2개월 연체전이율 지표를 통한 부실징후 검토(계속)

- 정상채권 → 2개월 연체전이율 지표 2018년 이후 꾸준히 하락 중
-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하락 중
- 특별한 부실징후가 나타나지 않음

카드상품별 정상→2개월 연체전이율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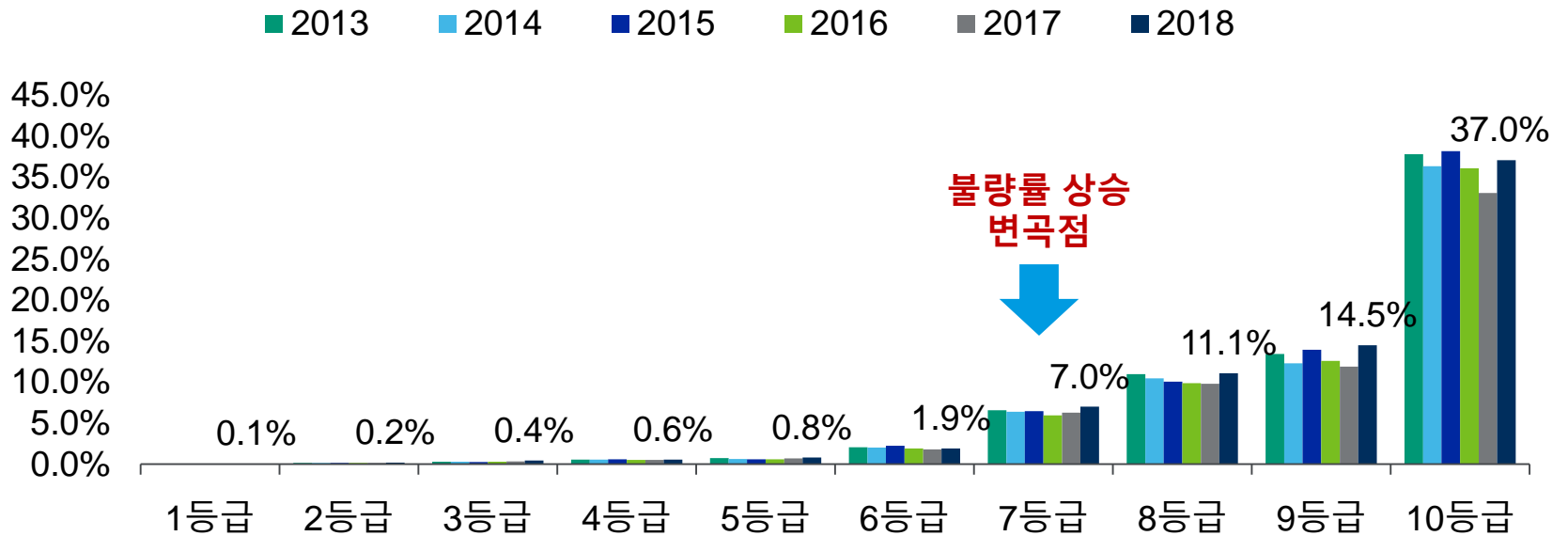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카드대출 포트폴리오를 통한 잠재위험 분석

- 카드대출 구성상의 잠재 위험 파악을 위해 고위험 카드대출 규모 및 비중을 검토
- 고위험 카드대출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카드대출
- 개인신용등급별 불량률 지표에 있어 불량률이 급등하는 변곡점이 7등급인 점을 감안하여 7등급 이하를 고위험군으로 분류

개인신용등급별 불량률



주1) NICE평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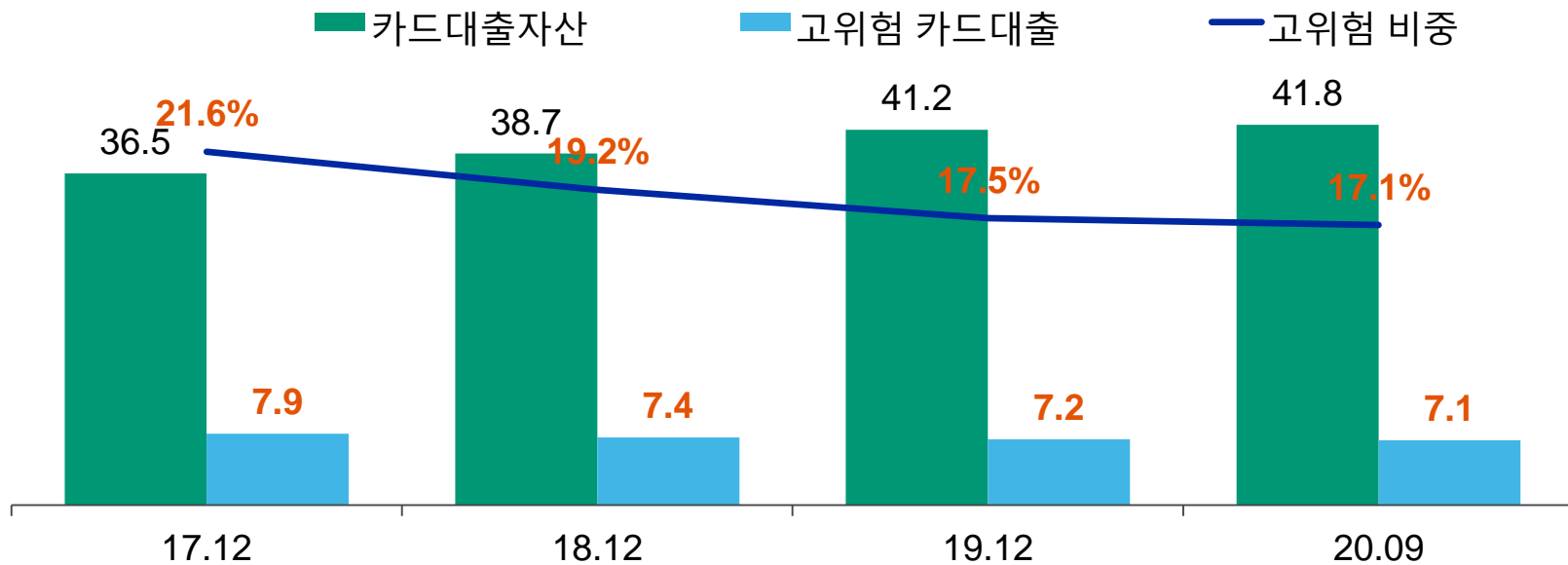
주2) 2018년 12월말 불량률은 대상자의 2019년 12월말 실적 불량률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카드대출 포트폴리오를 통한 잠재위험 분석(계속)

- 고위험 카드대출 잔액 감소(79조원 → 7.1조원)
- 전체 카드대출자산 대비 고위험 카드대출 비중 하락(21.6% → 17.1%)
- 고위험 차주의 대출 제한하며 리스크관리 → 최근 건전성지표 개선 영향

고위험 카드대출 잔액 및 비중 추이(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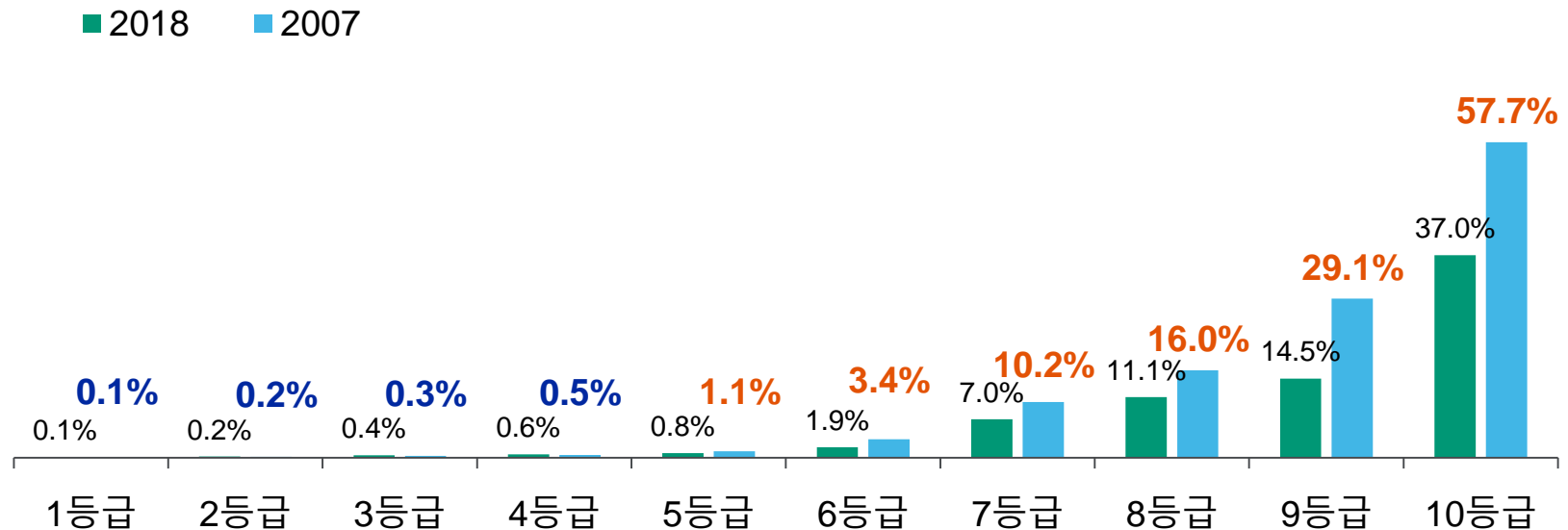
주)카드대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결제성리불빙+대출성리불빙잔액
주)고위험카드대출=7등급이하&3개이상금융기관대출보유한다중채무자의카드대출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대응력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등급별 불량률은 경기 저하 시 상승
- 서브프라임 당시의 신용등급별 불량률은 최근 불량률 대비 높음
- 특히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경기 저하 시 민감하게 변동

개인신용등급별 불량률(2018년 vs.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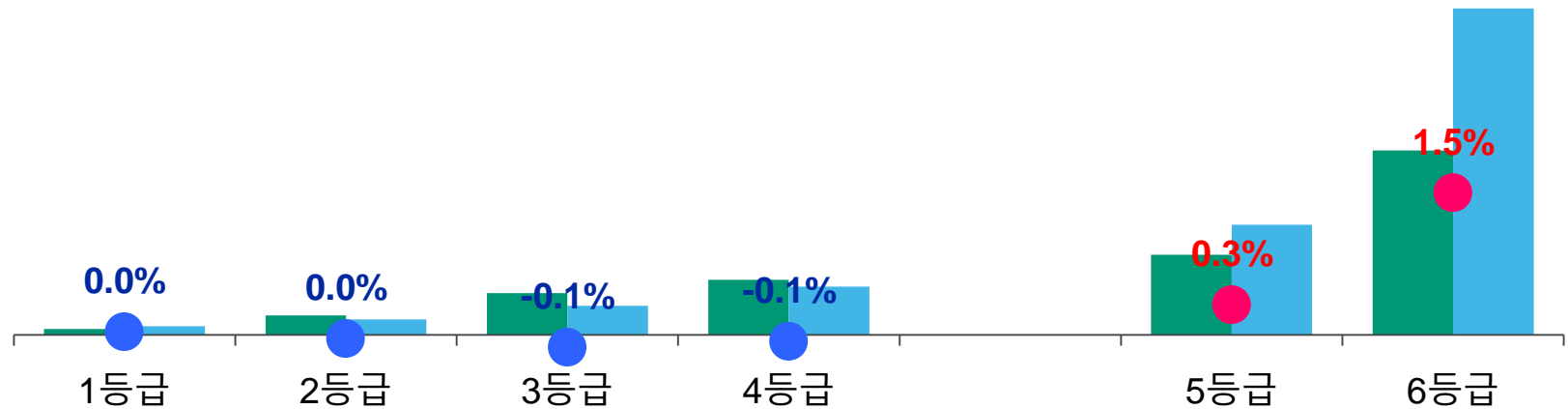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대응력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계속)

- 고신용자의 경우 유사시에도 불량률 변동 없음
- 5등급, 6등급의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

개인신용등급별 불량률(2018년 vs. 2007년)

■ 2018 ■ 2007 ●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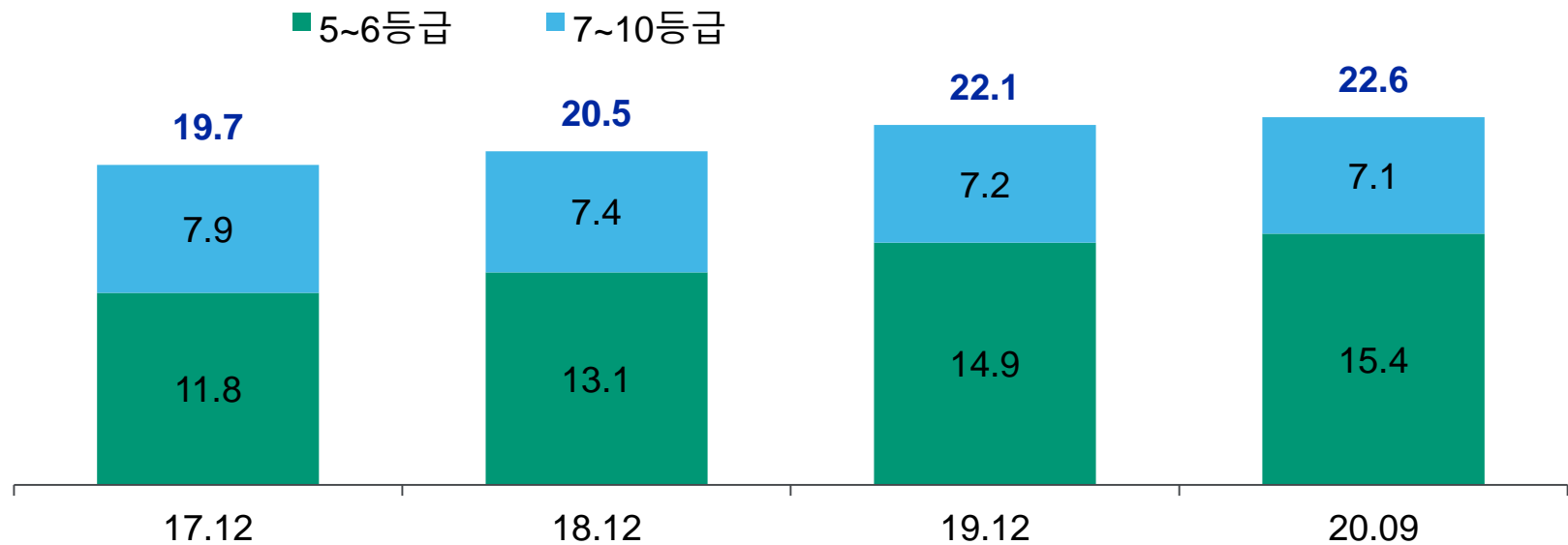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대응력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계속)

- 신용등급이 5등급, 6등급인 다중채무자도 고위험 차주로 분류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적용
- 5등급, 6등급 차주 유사시 불량률이 상승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
- 7~10등급 다중채무자 잔액은 감소했지만, 5~6등급 다중채무자 취급 잔액 증가로 5등급 이하 다중채무자 잔액은 꾸준히 증가

고위험 카드대출 잔액 추이(5~6등급 차주 포함)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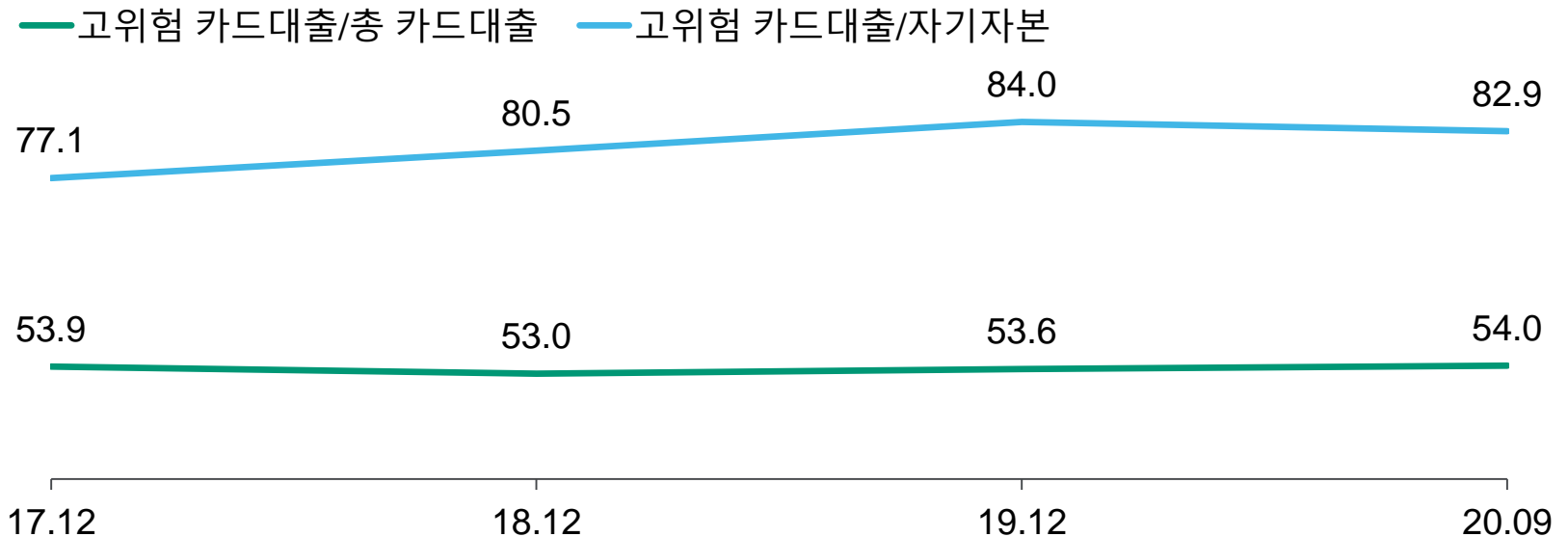


Credit Issues : 카드 자산건전성 점검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대응력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계속)

-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고위험카드대출 잔액은 전체 카드대출의 50%를 상회하며, 자기자본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은 개선됨. 다만, 중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위주로 구성된 카드대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신용자도 부실이 상승하는 유사시 상황에 대한 대응력까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카드사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지표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고위험 카드대출 비중 추이(자기자본 및 총 카드대출 대비) (단위:%)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김정훈 수석애널리스트

02.787.2284

junghoon.kim@kisrating.com

여윤기 수석애널리스트

02.787.2364

yunki.yeoh@kisrating.com



Disclaimer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시장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시장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traditional)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채권평가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 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스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스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